

결과보고서 요약문

사업기관	통일평화연구원		
사업명	한중평화협력포럼		
사업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백지운	통일평화연구원	조교수(HK)
사업기간	2018.4.1.~2019.2.28	사업비	

1. 사업목표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화동사범대학(華東師範大學) 주변국가연구원과 체결한 MOU에 의거, 한중평화협력포럼을 개최함으로써 통일·평화 연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
- 한중 정부 입장에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대화를 통해 한중간의 상호 인식의 격차를 줄이고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
- 학술적인 토론에서 현안의 이슈를 도출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한중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

2. 사업의 내용

- ‘통일 한반도 시대의 한·중 관계’ 라는 주제로 제1회 서울대-화동사대 한중평화협력포럼 개최. (2018년 10월 18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3. 사업의 성과

- 북한의 경제개방, 종전선언 및 한반도평화체제 추진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북한개방을 위한 협력의 파트너로 만드는 작업이 중요함. 제1회 ‘한중평화협력포럼’은 그동안 한중대회의 정치적 제약을 넘어서는 심도있는 상호 이해의 플랫폼을 만들었음.
- 1) 한중수교의 역사적 의미와 남겨진 과제 2) 한미동맹의 역사적 구조와 현재적 의미 3) 북중관계의 과거, 현재, 전망 4) 중국의 부상 이후 동북아 거버넌스 5) 북한 개방을 위한 한중 협력 전망 부분에서 중요한 의제들을 도출해 냄.

통일평화연구원

1. 사업 내용

1) 당초계획

□ 개요

- 사업명: 서울대-화동사대 한중평화협력포럼
- 기관명: 통일평화연구원
- 총 사업비:

□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의 통일 및 통합의 추진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전략적인 협력이 불가피하다. 수교 이후 26년간 한중관계는 경제, 정치, 문화 각 방면에서 눈에 띄는 진전을 이루어냈지만,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정착의 비전을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2016-2017년 사드 배치를 놓고 벌어진 양국간의 갈등 및 반목은, 정치적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 한중관계의 허약한 기반을 드러내었다. 변화무쌍한 동북아의 정치 지형에서 지속가능한 한중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양국의 지식인·엘리트 들을 중심으로 한 민간의 대화 채널들이 다방면에서 탄탄하게 지속되는 것이 필요하다.
- 북핵문제를 포함하여 한반도의 안보와 통일에 관해, 한중 간에는 많은 부분 뿌리 깊은 불신이 존재한다. 기존의 대화 테이블이 대부분 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함으로써 간극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양국 정부의 입장에서부터 독립적인 민간 학자들이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채널이 다수 생겨날 때 한중간의 상호 신뢰를 높일 수 있다.
- 한중대화의 범위를 정치적 의제를 넘어 경제협력을 포함한 실무적인 의제로 다양하고자 한다. 이제까지의 한중대화는 현안의 정치적인 의제에 치우침으로써 입장 차이만을 확인할 뿐 함께 협력할 실무적인 의제에 접근하지 못하

는 한계를 보여왔다.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여기에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한중회의의 의제를 경험, 피스투어리즘, 경제특구개발 등으로 확대,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사업이 ‘한중평화협력포럼’이라는 표제를 내건 이유도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한 남북한-중국의 경제협력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 목적

- 2017년 12월, 통일평화연구원은 북중관계 및 한중관계 방면에서 중국 내 최고 권위자인 셴즈화(沈志華) 교수가 이끄는 화동사범대학(華東師範大學) 주변 국가연구원과 MOU를 체결했다. 이에 의거하여, 매년 서울과 상하이에서 번갈아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통일·평화 연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2018년은 서울, 2019년은 상하이에서 개최.)
- 한중 학자들의 정부 입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 인식의 격차를 줄이고 신뢰를 강화한다.
- 대화의 의제를 정치적 문제를 포함하여 경제협력으로 확대, 다양화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한중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 기본방향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과 화동사범대학 주변국가연구원을 중심으로 하되, 각 기관의 구성원에 제한되지 않고 한반도 안보와 통일, 한중관계에 관한 양국의 최고 전문가를 각 8인, 총 16인을 패널로 초청하여 학술 회의를 개최한다.
- ‘한중평화협력포럼’은 매년 1회 서울과 상하이에서 돌아가며 개최한다. 2018년 제1회 ‘한중평화협력포럼’의 주제는 ‘한반도와 중국의 안보와 경제 협력’으로 한다.
- 포럼의 발표자는 학자들로 제한하되, 정치가나 관료들이 청중으로 참관할 수 있다. 발표자의 발언의 독립성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언론 보도는 자제한다.

□ 기대효과

-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서울대학교의 국제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 한반도 이슈에서 한·중 지식인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한다.
- 정부 입장에서부터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대화 공간의 확보를 통해 한중 대화의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
- 포럼의 의제를 정치적 현안에서 경제협력, 피스 투어리즘, 경제특구개발 등 확대·다양화함으로써, 한중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을 실사구시적으로 모색한다.
- 중국에서는 포럼의 결과를 내부간행물로 출간하여 중국의 고위 관료들이 열람하게 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 지식인들의 다양한 입장을 중국 정책 결정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일정별 추진 세부계획

일 정	추진 내용
2018년 2월	한중 발표자 각 8인, 총 16인 인선 완료, 숙소 예약
3-4월	발표자 16인을 대상으로 하여 상대측 발표자에 대한 질문을 담은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상호 번역하여 교환, 이를 토대로 포럼의 세부 주제를 확정
5월	세부 주제에 따라 각 발표자가 작성할 원고 방향 제시
7월	초청장 발송, 항공료 구매 등 실무 준비
8월	발표자 우니고 제출
9월	발표원고의 한중번역 및 교환
10월	제1회 한중평화협력포럼 개최
11월	회의내용의 녹취 풀고 원고로 정리

□

2) 실제추진 현황

□ 시기별 추진 현황 개요

일 정	추진 내용
2018년 2월	사업신청, 예산 조정
4-5월	한중 양측 발표자 선정. 각 발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최근 한반도 이슈 및 냉전 이래의 역사적 사실들을 포함하여, 한국은 중국에게 중국은 한국에서 다루기를 원하는 주제를 수합. 설문지를 모아 수합한 후 번역하여 상호 교환하는 과정을 거쳐, 포럼의 주제와 개별 발표 주제를 조정
6월	발표주제 확정 및 세부 실무사항 논의
7월	초청장 발송, 항공료 구매 등 실무 준비
8월	발표자 원고 수합
9월	발표원고의 한중번역 및 교환, 동시통역 등 실무사항 준비
10월	제1회 한중평화협력포럼 개최
12월	회의내용의 녹취 풀고 원고로 정리
1-2월	웹보고서 편집

□ 추진 내용

- 이제까지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한중회의가 정치적 주제를 다루면서도 그 민감성으로 인해 자유로운 토론을 벌이지 못하는 것이 큰 한계였다. 서울대-화동사대 한중평화협력포럼은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 형태로 진행했으며, 하루라는 제한된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양 패널은 포럼 5개월 전에 상대 패널에 대해 묻고 싶은 질문들을 교환했다.
- 사전에 교환한 질문들은 한중관계, 북중관계, 한미관계, 남북관계에 관한 냉전 이후의 역사적 쟁점이자 현안의 이슈와 연결되는 것으로, 질문의 내용을 핵심만 갖추리면 다음과 같다.

- <중국측 사전 질문>

- 주한미군의 지위와 영향에 대한 한국의 시각은 무엇인가
- 냉전시기 한미동맹 내부에서 누차 위기가 발생했음에도 동맹에 균열이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냉전 종결 전후 한미일 삼각동맹이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에 미치게 될 영향은 무엇인가
- 한국 학자들은 한미동맹과 북중동맹 각각의 특징과 차이를 어떻게 보는가
- 한국이 보는 이상적 통일모델은 무엇이며 통일한국의 대 중국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 대북정책에서 한국은 정당 이념을 초월한 일관된 입장을 지니고 있는가

- <한국측 사전 질문>

- 미중수교 이후 개혁개방 시기까지, 중국은 북중관계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가. 중국은 미중수교나 한중수교 과정에서 북미수교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가. 향후 북미수교의 전망을 중국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 북한이 친미정권으로 변할 가능성에 대한 중국 측의 예측과 대응은 무엇인가
 - 중국의 부상이 가져오는 지정학적 결과는 무엇인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중국의 동북지역과 동북아시아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 일대일로를 보는 주변 약소국의 위기의식에 대해 중국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
 -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당군관계는 후진타오 지도부 시기와 어떤 차별성을 지니는가
- 중국 측 사전질문은 한미관계 및 한미동맹의 구조 및 한미일 동맹에 구조, 한국의 대북정책과 대중(對中)정책의 연동성,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에 대한 관점 등을 묻는 질문들이 많았다. 특히 한미동맹의 구조와 역사, 모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한국 학자들의 경우는 북중관계 ‘일대일로’를 비롯한 중국의 부상이 한반도 및 동북아에 가져올 변화, 그리고 북중관계의 역사와 전망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었고, 덧붙여 ‘일대일로’를 비롯한 시진핑 정부의 정책이 동아시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들이 제기되었다.
- 한미관계에 대해 오랜 연구가 축적되어 온 것에 비하면, 한중관계는 대부분 현안의 쟁점을 다루는 토론들이 많았다. 한미관계에 비해 한중관계를 역사와 구조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학문적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

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패널 선정 과정에서 한중관계 전문가를 찾기 어려웠던 상황이 잘 보여준다. 물론, 한중관계는 한미관계, 북중관계, 북미관계와 긴밀히 연동되어 있는 만큼 독립된 영역은 아니다. 따라서, 1회 포럼의 패널은 한중, 한미, 북중 관계를 두루 다룰 수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3) 사업 내용별 운영 성과

□ 사업성과 (구체적 내용 기술)

- 2018년 10월 18일 제1회 한중평화협력포럼 개최.
 - 주제: 통일 한반도 시대의 한·중 관계
 - 일시: 2018년 10월 18일 (목) 10:00-18:00
 - 장소: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4회의실

09:50-10:00	환영사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前 통일평화연구원장)
10:00-10:45	제1라운드: 한중수교의 역사적 의미와 한계	사회: 백지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한중수교의 역사과정	선즈화 (화동사대 주변국가연구원)
	한중수교과정 중 중국 외교전략 재검토	둥지에(중공중앙당교)
	한중문화 교류와 역사적 교훈	리샤오지에(산둥공상학원)
	18세기 한중 서적사 교류와 문화 융합	자오칭지에 (원난대학 역사 및 당안학원)
10:45-11:45	제2라운드: 한미동맹체제와 한중관계	
	1970년대 상반기 남북관계긴장완화의 역사과정	량즈(화동사대 주변국가연구원)
	냉전기 미국의 한반도 안보 전략	천보(화동사대 주변국가연구원)
	냉전기 미국의 대한 경제/군사 원조의 특징	박태균(서울대 국제대학원)
	위계로서의 미·일·한 안보 삼각관계	김성철(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1:45-12:00	휴식	
12:00-13:00	라운드테이블 토론	좌장: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3:00-	점심식사	

14:30		
14:30-15:30	제3라운드: 정상회담 이후 북한 변화의 전망	사회: 천보 (화동사대 주변국가연구원)
	김정은 시대의 당군관계 변화와 선군정치	이상숙(국립외교원)
	평양의 대중국 정책의 변화와 지속	류밍(상하이 사회과학원)
	한반도의 이상적 통일모델은 존재하는가	김병로(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5:30-16:30	제4라운드: 변화하는 동아시아 지정학과 한반도의 역할	
	중국의 부상과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전환	신옥희(서울대 정치외교학부)
	G2의 신화와 동아시아 지역 거버넌스	손인주(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동아시아 충돌 지점의 전이	이정훈(서울대 중문과)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과 동양평화	백지운(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6:30-16:45	휴식	
16:45-17:50	라운드테이블 토론	좌장: 선즈화 (화동사대 주변국가연구원)
17:50-18:00	폐회사	김성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제1회 한중평화협력포럼은 하루에 걸쳐 진행된 회의였지만 사전 설문, 질문지 수합 및 교환 등 오랜 사전 준비를 거친 만큼, 다른 회의에서 다루기 힘든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포함하여, 한중관계, 북중관계, 북미관계, 남북관계에 관한 깊이 있는 토론을 벌일 수 있었다. 제기된 여러 쟁점 중에는 그 자체로 독립된 연구주제가 될 수 있는 것들도 있었다. 아래에서는 제시된 냉점들을 1) 한중수교의 역사적 의미와 남겨진 과제 2) 한미동맹의 역사적 구조와 현재적 의미 3) 북중관계의 과거, 현재, 전망 4) 중국의 부상 이후 동북아 거버넌스 5) 북한 개방을 위한 한중협력 전망으로 나누어, 쟁점을 정리해 본다.

- ① 한중수교의 역사적 의미와 남겨진 과제

- 한중수교는 당시 중국의 개혁개방이 국내외적 제약으로 난관에 봉착한 상황에서, 난관을 타개하고 개혁개방을 완수하기 위한 결정적인 돌파구였다. (중)
- 1989년의 한중수교가 중국의 개혁개방 완수를 위한 결정적 선택이었다면, 지금의 새로운 한중관계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중)
- 지금 중국이 처한 상황은 1990년대 초와 비슷. 지금이야말로 한중관계를

다음 단계로 발전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에는 많은 이념적 제약이 있다. 지식인의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다.(중)

- 1992년 한중수교는 한국 중국의 입장에서 모두 신의 한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중국은 한중수교로 인해 유일한 동맹국인 북한을 잃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중수교는 북중관계를 악화하여 오늘의 북핵위기를 야기했다는 또다른 측면이 있다.(한)
- 한중수교의 결과로 북중관계가 악화될 것에 대해 당시 중국이 어떻게 예상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문서자료가 없어 연구가 어렵다. 덩샤오핑은 한중수교가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초래할 것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수교를 단행한 것은 국익 차원에서 절실한 요구가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은 당시 북한이 핵무장의 길로 나서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북핵문제의 대두야말로 1990년대 후반 한반도 정세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

- ② 한미동맹의 역사적 구조와 현재적 의미

-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 입장의 변화. 키신저와 저우언라이의 담화가 보여주듯 애초에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는 일치했다. 덩은 내부 담화에서도 주한미군이 한반도 안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키신저는 미국은 남한을 잘 통제해서 북진을 막하고 중국은 북한을 잘 관리해서 남침을 막아 한반도의 평화가 실현될 수 있을 거라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미중관계도 북중관계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한중수교 이후 북중동맹이 이미 와해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의미는 크게 달라졌다. 북한의 남침 의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많은 중국인들이 주한미군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중)
- 남북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 철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의 의미는 무엇인가 (중)
- 한국의 반미정서 및 한미 정부간의 불신, 균열이 존재했음에도 한미동맹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
- 한미동맹은 그동안 군사안보적 측면이 강화되었지만, 사실은 경제적 측면도 매우 중요했다. 한, 미, 일 동맹간의 상호 원조, 방위에서의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동맹, 미일한 동맹을 분석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차원이다. 그 점에서 삼각관계 안에는 필연적으로 균열과 긴장이 발생할 요소를 처음부터 안고 있었다. 환율문제, 한일국가정상화, 닉슨 시기의 주한미군 전면 철수에 대한 고려 등도 동맹체제 내부의 비용분담이라는 경제적 요소가 크

게 작용했다. (한)

- 한국에서는 두 가지 위협에 대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본다.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한 억지의 일환으로써 주한미군이 필요하고, 남북한이 평화협력으로 가서 한반도의 무정부 상태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통일 혹은 통합된 한반도는 무정부 상태인 동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힘의 균형자(balancer)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일, 주한미군은 일종의 병마개이다. 병 속의 가스가 분출하지 않게 막는 역할을 한다. 결국 동아시아의 안보가 충분히 제도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한)
- 한국에서는 주한미군 철수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슈이다. 오히려 1980년대에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면, 지금은 정치적 분위기가 더 경직된 측면이 있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한국의 민주화 이후에 나타난 굉장히 역설적인 현상이다. (한)
- 한국에는 미국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76% 이상의 국민이 미국을 가장 친밀하게 여긴다. 반면, 북한 역시 중국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탈북자 의식조사를 보면) 70% 이상이 북한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한미군 철수 이슈는 이같은 국민정서를 무시할 수 없다. (한)

- ③ 북중관계의 과거, 현재, 전망

- 지금 북중관계가 어떤 수준의 동맹, 우호 관계인가. 북미수교 과정에서 나타난 최설희 김계관과 같은 강경발언을 보건대, 북한 내부에도 보수와 진보가 있다고 생각되며, 정부와 민간의 생각이 다르기도 할 터이지만, 지금 북중관계가 과거 동맹의 복원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하다.(한)
- 한중수교 당시, 중국은 왜 남북한 교차승인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았는가. 당시 중국이 처한 어려운 국내 상황. 한국이 신속히 대만과의 관계를 끊었던 상황, 북한이 교차승인을 분단의 영속화라고 보아 찬성하지 않았던 점 등이 요인이었을 것이다. (중)
- 교차승인 당시, 중국은 한중수교에 대해 민간싱크탱크 들이 오랫동안 준비 작업을 했다. 당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은 북한 대신 한국을 선택하는 결정을 했던 것.(중)
- 지금의 북중관계는 냉전 초기와 많이 다르다. 중국의 민간사회와 지식인 사회 어느쪽도 유사시 과거처럼 중국이 북한을 원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중수교 이후 사실상의 북중동맹은 와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중)

- ④ 중국의 부상 이후 동북아 거버넌스

- 일대일로로 상징되는 중국의 지경학적 부상이 동북아에 가져올 거대한 변

화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중국의 동북3성, 그리고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그리고 북한의 개방에 따른 접경지대 협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관건이다. 그 점에서 중국의 부상은 한국에 지경학적 기회가 될 수 있다.
(한)

- 한국에게는 한미일 관계와 한중일 관계가 모두 중요하다. 양자 사이에 어떤 접점을 찾느냐가 중요하다. 중국의 부상이 과거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텐데, 여기서 한국은 한미일 한중일 동맹체제 사이에서 어떻게 내부적 균형자 역할을 찾느냐가 중요하다.(한)
- 남북관계와 동아시아 상호 관계의 역행성. 독일 통일 당시 EU의 상황을 참조하건대, 동아시아 내부의 상호 신뢰와 협력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관계를 보장하기 어렵다. 그 점에서 한국 내 중국, 일본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호감도가 떨어지는 지금의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의 평화와 같이 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한)
- 최근 북한의 변화 이후 '일대일로'에 비어있던 동북아와의 연계를 채우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몽러 회랑과 연결하는 동북아 회랑이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가 크면서도 자본의 투여로 인한 개발이 어떻게 지역의 평화를 담보하느냐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동북아가 과거부터 일본,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의 이권충돌의 장소였다는 역사적 교훈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한)
-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이후 왜 주변국들이 중국에 대한 반중감정이 강해지고 불안해 하는가에 대해 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일대일로가 약소국에 야기할 채무함정도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 전세계적으로 친중파가 사라지고 반중파의 목소리가 높은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중국은 중국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보다는 지도부에 대한 찬양의 목소리가 압도적이다. (중)
- 중국의 외교는 과거로부터 제3세계 국가가 핵심이다. 일대일로도 그런 전통적인 관념의 연장선이다. 과거부터 중국은 길을 닦아야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중)
- 주변국이 중국에 대해 느끼는 불안과 위협의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이 '일대일로'든 국력의 부상 과정에서 그 내부에 어떤 가치관, 민주화의 과정을 함께 성숙시키느냐에 있다. (한)

- ⑤ 북한 개방을 위한 한중 협력 전망

- 북한은 경제규모가 작아 한국과 중국과의 약간의 경제협력만 들어가도 북

한 경제는 크게 좋아질 것이다. 문제는 그것을 관리하고 이끌 북한의 지도자들의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것. 따라서 북한의 경제개발정책 수립 과정에서 중국과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다.(한)

- 중국이 대국으로서, 동북아 지역협력에서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 사드배치 이후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는 한국에서 반중감정을 크게 고양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수교 이후 한중이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뼈아픈 결과를 가져왔다. 대국적인 소프트파워를 키워가고 그런 차원에서 대한반도 정책을 만들어가기를, 그래서 한국이 중국과 협력하여 북한을 개방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한)
 -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해 중국은 다소 비관적이다.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이 문제를 많이 토론하지만, 우선은 동북지역의 개혁개방이 많이 뒤쳐진 상황이다. 동북지역의 경제구조가 낙후하고 지도체제도 부패되어 있어, 이 상황에서 '일대일로'를 이 지역에 확대한다 해도 제 역할을 할지 의문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자본이 들어가면 사상이 바뀔 것이라 낙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과연 그럴지 의문이다. (중)
 - 북미관계에 대해 말하면, 미국이 북한에 기회를 준다면 북한은 미국을 선택할 것이다. 이는 중소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중국도 소련의 위협을 받았을 때 미국과 손잡았던 것처럼, 북한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 (중)
- 포럼 포럼의 녹취록을 편집하여 웹보고서로 제작 중임. 포럼 참석자의 동의를 얻어 IPUS 웹보고서로 제작, 배포 예정.

□ 관련분야 기여도

- 2018년 남북정상회담, 북중정삼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연쇄적,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지정학 지정학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북한이 개방을 추진하게 된다면, 한반도 및 동북에서 중국의 역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중, 남북 간 오랜 격절과 냉각기로 인해, 상대에 대한 정보와 이해도가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임. 또한 한중관계는 '정냉경열'의 상태로서,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정치적 부분에서는 상당한 정보부족으로 인한 몰이해가 발생함.
- 본 한중평화협력포럼은 냉전 이후 지금까지 남북, 북중, 북미, 한중관계에 대한 정치적 역사적으로 민감한 부분까지를 포함한 심층적 대화의 플랫폼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됨.

- 비록 1회의 회의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지만, 이슈를 짚어내고 상호 공동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했으며 실행을 위한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1회 한중평화협력포럼의 구체적인 성과를 짚어보면 다음과 같음.
 - 현안의 정세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냉전 이후부터 탈냉전까지 남북관계, 한중관계, 북중관계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기반으로 현안의 문제에 대한 전방위적 토론의 진행, 한중대화의 수준을 끌어올렸다고 평가함.
 - 한미(동맹)관계, 북중(동맹)관계에 대한 한국과 중국 지식인들의 상호간의 이해의 수준을 확인한 점. 이에 관해 한중간에 적지 않은 오해가 있으며 관련된 상호간의 지식 및 정보가 부족한 현실을 인식하게 됨.
 - 주한미군 문제가 여전히 중요하게 제기됨. 이에 관해 한국 패널들로부터 매우 민감한 부분까지를 포함하여 진솔한 답변이 제기되었음.
 - 한미동맹, 한미일 동맹을 정치 군사 안보의 차원만이 아닌 경제적 차원에 대한 복합적인 분석 시각이 제시되었음. 동맹 내부의 균열, 긴장 요소에 대한 역사적 종합적인 분석이 제공되었음.
 -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기존의 축적된 연구들이 있어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진 반면, 북중관계의 역사와 현주소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한국 측 패널의 궁금증, 특히 한중수교 이후 악화된 북중관계의 현실, 교차승인에 대해 중국이 소극적이었던 이유, 그리고 최근 복원되는 것처럼 보이는 북중관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논의가 어려웠던 것이 아쉬움.
 - 한중수교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 진행됨. 1990년대 초 한중수교가 당시 난관에 봉착한 중국의 개혁개방에 큰 돌파구가 되었던 역사적 교훈을 현재적으로 되살리는 작업의 중요성이 제기. 제2의 한중관계 발전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큰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중국이 지금 처한 국내외적 곤경을 타개하는 데도 큰 돌파구가 되어야 한다는 중국 측 관점이 신선함.
 - 일대일로와 동북아 지역 거버넌스, 그리고 북한의 개방을 연계하는 논의가 전면적으로 토론됨. 중국의 경제 부상이 동아시아의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면, 동아시아의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에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가 관건임. 그 점에서 최근 한반도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확대되는 중국에 대한 위협의식, 불안은 매우 중요한 지역적 이슈라는 점이 양측 패널에 공유되었음.
 - 중국의 부상, 동북아 거버넌스 구축이 북한의 개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낙관과 비관이 공존. 포럼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으나 향후 중요한 토론 주제라고 생각됨.

2.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1) 자체평가

□ 사업평가

○ 사업의 적절성

-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북한의 경제개방, 종전선언 및 한반도평화체제 추진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을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이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중요한 사안을 앞두고 중대한 시기마다 북중정상회담이 일어나는 최근 상황에서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중국을 한편으로 경계해야겠지만, 지리적 조건이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서 중국을 피하거나 경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반대로 중국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북한개방을 위한 협력의 파트너로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한중평화협력포럼’은 시의적으로 큰 의미가 있으며, 2018년 1회의 사업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 특히 이번 포럼은 계획단계에서 포럼 패널의 선정, 주제의 선정 과정으로 상호간의 설문을 통한 의견 교환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내실있는 포럼의 내용을 준비할 수 있었다. 그 점에서 계획단계에서 구상했던 형식적 내용상의 의미를 거두었다고 생각된다.

○ 사업의 효율성

- 1회이 포럼으로 효과적인 내용을 생산했다고 평가됨.

○ 사업의 영향력

- 비공개사업인 만큼 단기간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가늠하기는 어려움.
- 서울대측은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애초에 계획했던 단행본 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으나, 웹보고서 형식으로 게시할 예정임.
- 중국측은 포럼 내용을 정리하여 ‘내부 논문’으로 출판할 예정이므로, 포럼 중 쟁점된 중요한 문제는 중앙부처에 건의사항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높음.

○ 사업의 발전가능성

- 한중평화협력포럼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화동사대 주변국가연구원의 지속

적인 양자협력으로 구상된 사업이다. 1회 포럼에 이어, 2회 포럼은 화동사대 주변국가연구원의 주관으로 상하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미흡한 점(한계) 및 개선(보완)할 점

- 포럼의 진행 과정에서, 중국 쪽 패널 두 명이 직전에 참석을 취소하여 대체하는 상황이 발생함. 그러나 이는 진행상의 미숙함이라기보다는 이 포럼이 갖는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해 중국 측에 장애가 있기 때문임. 이 부분은 한반도 정세가 개선된다면 더 호전될 것이라고 생각함.

향후 계획(내년 계획)

- 2019년 10월에 예정된 제2회 한중평화협력포럼은 화동사대의 예산으로 개최될 예정이므로, 별도로 서울대 통일기반구축사업 신청을 내지 않을 예정임.

2) 건의사항

사업 진행 관련

- 현안 이슈만이 아닌, 냉전 전후의 역사적 사안까지를 포함하는 한중포럼의 플랫폼은 현재까지는 이 포럼이 유일하다고 생각됨. 그 점에서 이 플랫폼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 없음

기타

- 결과보고서 작성 항목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음. 사업 적절성, 효율성, 영향력 등.

3. 관련자료

대표적 사업 실적

- 제1회 한중평화협력포럼 웹보고서